

“신자들에게 베푸는 사제 되겠습니다”

남가주 백삼위본당 심원택 신부 은경축

남가주 백삼위 본당 주임 심원택(토마스) 신부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맞아 본당은 2월 4일 전 신자들이 참석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은경축 행사는 신자들의 마음을 모은 영적·물적예물 전달, 사목회장 축하, 성가대와 사목위원들 축하, 심원택 신부의 소감으로 이어졌다.

최기남(야고보) 사목회장은 “교우를 사랑하시며 삶이 녹아 있는 강론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느님이 계시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심신부에게 감사를 전했다.

심원택 신부는 “축하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고, 제가 과연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늘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신다”라며 “사제로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요아킴



심원택 신부가 2월 4일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기념행사에서 본당 어린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